

서양화로 탄생한 佛畫 반야심경 270자 새긴 2000호 대작에 ‘탄성’

무각사 ‘반야심경’·스테인드 글라스 탕화 신도들에 첫 선

황영성 화백 1년 걸쳐 작업

임종로 작가가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 6점도 눈길

24일 봉안식서 일반에 공개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 지장전, 지장보살상과 함께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작한 탕화,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반야심경’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자 990㎡(300평) 규모 경내를 가득 메운 신도 수백명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온다.

이날 지장보살 점안식(불상에 눈을 그려 넣으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에 참석한 신도 약 500명은 이색적인 탕화작품과 ‘반야심경’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신 카메라에 담느라 열중했다.

신축 중인 지장전, 설법전 등 건물을 현대 서양화와 스테인드글라스 탕화로 꾸미는 등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 무각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작품이 온전히 설치된 모습을 첫 공개했다.

약 660㎡(200평) 규모 설법전 정면에 설치된 ‘반야심경’은 지역 원로화가 황영성(76) 화백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약 2000호(가로 8m·세로 2.5m) 크기 작품은 화면을 수백개 칸으로 나눠 반야심경 270자와 관음·지장·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 등을 그려넣었다. 빨랑·노랑·파랑 등 한국 전통 오방색이 주로 사용돼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보살들은 금색으로 표현해 신성한 느낌을 전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 만큼 설법전 역할과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점이 엮여있다.

특히 황 화백은 독창적으로 표현한 반야심경 속 글자를 오른쪽 위부터 왼쪽 순서로 채워넣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작품을 접한 신도들은 처음에 단순 서양화인지 알았다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이 써진 걸 알아채고는 더욱 집중해 보기 시작했다.

이번 작업은 황 화백이 지난 2010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며 맺은 인연에서 시작한다. 청학스님은 지난 상하이 비엔날레에서 200호 크기 반야심경 작품을 선보였던 황 화백에게 지난해 작업을 의뢰한다. 옛 사찰들처럼 새로운 문화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

100호 이상 작품을 주로 제작했던 황 화백에게도 2000호 크기 대작은 처음이라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불교신자가 아닌 황 화백은 한문이 흑시라도 틀릴까봐 확하나, 점 하나 더욱 신경썼고, 입체적인 사천왕을 여러번 다시 그린 끝에 평면으로 옮길 수 있었다.

황 화백은 “반야심경을 공부하며 이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사찰이 전통만 답습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장보살상 주위에 배치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도 신선한 볼거리였다. ‘아미타팔도보살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지장시왕도’(이상 가로 1.8m·세로 2m) 탕화 4점을 비롯해 지장보살 바로 위 천장과 입구쪽에서는 현대단청 2점이 보인다. 주로 유럽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자연 채광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으로, 오방색 등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고려불화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이 작품도 청학스님의 아이디어였다. 반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지장전 천정에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무각사는 지장보살 점안식을 열어 신도들에게 작품을 처음 공개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지하 형태 지장전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설치해 문화적 느낌과 자연 채광 두가지 효과를 노렸다. 또한 번새·파손이 되지 않아 수명 1000년이 넘는 스테인드 글라스 설치를 통해 무각사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염원이 숨어있다.

작품 제작자는 이탈리아에서 16년간 전통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연구한 임종로 씨다. 지난날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로터스갤러리에서 탕화작품을 전시하며 미

리 선보이기도 했다.

무각사는 오는 24일 탕화 봉안식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 다.

청학 스님은 “현대미술 작품을 비롯한 건물 불사는 신도들이 심시일만 보내준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빛의 도시 광주를 밝히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작가 조현택 개인전 ‘밝은 방’



‘빈 방’

15~28일 갤러리 리체

갤러리 리체가 올해 진행한 청년작가 초대전에 선정된 조현택 사진작가가 28일까지 ‘밝은 방’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옵스큐라(빛을 차단한 공간 벽에 바늘구멍을 뚫어 밝은 바깥 풍경이 멋지게 하는 촬영기법) 대형사진, 인물 작품 등 15여점을 선보인다.

조작가 인물에서 풍경으로 작품 주제를 변화시켰던 작가는 이번에는 인물과 풍경을 한구도 안에 넣었다.

나주, 함평, 광주 등에서 방치된 빈집을 찍은 ‘빈 방’ 시리즈는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이다. 누군가 남겨 놓은 흔적이 나 낙서, 커튼, 액자, 포스터 등을 재배치하고 집 밖의 풍경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옵스큐라 방식’을 활용했다.

작가는 곧 철거를 앞둔 ‘집들의 영정 사진’이라고 표현한다. 방 한쪽 벽에 공사장, 나무, 들꽃, 초가집 등 바깥 풍경

을 투사시켜 실재와 환영, 어둠과 빛, 삶과 죽음이 어우러진 공간을 창조했다. 특히 남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북향에 이미지가 선명하게 비쳐 차가운 방에 따뜻한 이미지를 불어넣었다.

또 함께 전시하는 인물 작품은 가짜 세트장 속에서 유령 같은 포즈를 취하며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소재다.

조씨는 “액자로 제작된 사진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전시는 항상 의미가 있고 전시장 자체를 또 하나의 매체로 생각한 다”며 “이번 사진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잊혀져 가는 풍경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동신대 사진영상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를 전공하고 2012·2016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빈방-photography’(서울), ‘소년이여! 아픔을 가져라’(서울), ‘내가 기억하는 것들’ 등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28일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28일까지 2017년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시 해설, 어린이체험실, 박물관 교육 분야이며, 자격요건은 최소 주1회 4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기본교육 이수 후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8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applegirl@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봉사하게 되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중식과 교통비 등이 제공되며, 1365 자원봉사 포털(1365.go.kr)에 가입된 사람은 봉사활동시간이 인정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aju.museu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330-78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철학과 BK21 국제학술세미나

21~23일...국내외 석학들 동서양 다원주의 탐구

논쟁을 끌고 있다.

21일에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와 일본 동경대학교 불교학과·철학과 대학원생들의 학술교류 세미나가 개최된다.

둘째 날(22일)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본 행사가 열린다. 오전에는 ‘동양과 서양에서의 현상학’(테즈야 도쿄대학 교수) ‘틀리츠와 양자역학의 도교적 횡단’(이승중 연세대 교수) ‘심즉리의 출현 :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이항준 전

남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동서양 다원주의 :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 신체화된 인지 그리고 초기 중국철학 연구’(슬링거랜드 교수) ‘인문학적 세계시민주의’(아이반호 교수) ‘일본에서 종교다원주의’(켄로 도쿄대학 교수) ‘화엄사상에서 총체성의 의미’(고승학 능인대교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좌장 노양진 교수)이 이어진다. 문의 062-530-06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철학과 BK21플러스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노양진 철학과 교수)이 21~23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서양 횡단 : 다원주의의 철학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동양철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슬랭거랜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와 아이반호 홍콩성시대학 교수가 참여해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